

광주, 반도체 특화단지·전남, 국립의대 빠른 설립 요청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광주시, 군공항 이전 국가 사업화 AI집적단지 등 13개 현안 건의
전남도,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쌀값 대책 등 20개 사업 반영 당부
권성동 “소속 정당 떠나 적극 협조”

광주시와 전남도는 18일 광주시청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국가 지원형 복합소방물류 유치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를 이끈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며 “시도지사님들도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13개 현안사업 지원=광주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표 공약사업이기도 한 복합소방물류 성공하기 위해 예산지원 확보를 기반으로 민간자본과 광주시가 삼각축을 이루고, 민간의 수익성과 공공의 공공성이 공존할 수 있는 차세대 모델인 ‘메타니켈플렉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자본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디지털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3000억원, 트램과 도로 등 연결교통망 구축 6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전방·일선방직 부지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종합버스터미널 등을 있는 수소터램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막대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좁은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면 현실화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또 이날 국민의힘 측에 인공지능 2.0 사업비로 AI집적단지 기반구축 등 국비 105억원 증액을 비롯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밀거름이 될

‘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보태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역사이팅 사업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초기 사업비로 국비 30억원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GGM) 근로자의 공동복지 지원을 위해 주거비 및 교육 지원비로 국비 22억 5000만원을 비롯한 근로자 공동복지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도 건의했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심부 교통혼잡 완화 및 광역도시간 이동 편의를 위해 1조원대 규모의 ‘제3순환 고속도로망 개설’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비(국비 50억원) 지원 등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완성 ▲문화전당 교류관광특화공간 조성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 사업화 ▲자동차 종합 테마파크 조성 ▲미래차 부품 메타팩토리 구축 ▲미래차 전환 중·소 부품기업 역량 강화 ▲EV 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미래자동차 R&D 특화 교육센터 지원 ▲미래차 부품 메타팩토리 구축 사업 관련 국비 지원 등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건의받은 예산·사업들에 대해 예산당국 및 대통령실과 협의의 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립의대 조속설립·쌀값 대책 마련해달라”=전남도는 이날 모두 20건(정책지원 7건·예산지원 13건)에 대한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전남도는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는 10건의 정책 지원과 45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부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전남도도 새 정부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대표적 정책 지원 사업으로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지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국가계획 수정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도·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호남권 SOC 조기 확충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에 대응하는 호남 내륙·남동권 해안을 연결하는 고속 대량수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조 357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여수 간 운행시간이 2시간 10분대로 쏙 줄어든다. 전남도는 또 광주 승촌 IC~서영암IC 간 41.5km를 고속화하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농·수협 중앙회 등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여당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국내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이면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이 집적화된 만큼 관련 기관을 한 데 모아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생명·금융 융복합 허브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수협 중앙회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를 위해서는 서울로 규정된 농·수협 중앙회법과 정관을 바꿔야해 여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지역 숙원 사업으로는 ▲국토 서남단 도서지역 주민 교통기반권 확보 및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흑산공항 건설 ▲면역치료에 특화된 거점 구축을 위한 화순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신뇌혈관질환의 국가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립신뇌혈관연구소 설립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3조원 이상 수립 ▲국가 첨단 농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13개 사업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쌀 수급 및 쌀값 안정대책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최근 쌀값이 17만 원대까지 하락해 농가의 사정이 크다”며 “현재 국곡 30만 t이 남아 있어 신곡 출하 시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9월 이전까지 제과량 전량 수매와 함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물량을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가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주 기자 lucky@kwangju.co.kr



18일 오후 광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jeans@kwangju.co.kr

대통령실 지지율 하락에 비상체제 말 아끼는 尹·김여사는 두문불출

수석부터 말단까지 긴장 모드
대통령 대신 비서진 현안 대응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통령실에 비상이 걸렸다. 일단, 일시적인 여론 동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모습이지만 수석비서관부터 말단 직원까지 전체가 바짝 긴장한 채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탈북어민 복송’ 사건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으로, 전보다 깊이가 현저히 얕고 내용도 비교적 정제된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5일 도어스테핑 때 질문을 두 개만 받은 데 이어 이날도 질문 하나만 받고, 야권의 ‘사적 채용’ 공세 관련 질문에 대해선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라며 즉답을 피했다.

장시간의 질의응답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던 기존의 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국정 현안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3계원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고 언급한 것도 대통령실 전반의 ‘긴장 모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만하게 비치지 않기 위한 태도 변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가급적 자제하는 ‘말조심’ 기조와 함께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슈파이팅을 통해 메시지 관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남 최영범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현안 브리핑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이나 대통령실 페이스북 계정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대기 비서실장이 조만간 대국민 여론전의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가급적 공개 발언을 줄이고 비서진이 민감한 현안 대응에 나서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절제 모드로 전환했다. 역대 영부인 릴레이 예방, 여당 중진 의원 부인 모임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순방 동행까지 외부 활동을 지속하다 최근 들어 두문불출하고 있다. 한때 정치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당내 혼란 등을 고려해 잠정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방위 비상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또 집권 초반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하기 보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장기적 정책 기조를 풀어나가려는 흐름도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핵관’ 브라더 권성동·장제원 또 불화설

장 “말씀 너무 거칠다” 경고장
권 “장의원 지적 겸허히 수용”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17일 불거졌다. 이날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을 둘러싼 권 대행의 대응 방식을 놓고 장 의원이 작성한 듯 공개 경고장을 내밀었다.

장 의원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내 ‘원불’인 권 대행을 향해 “말씀이 무척 거칠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 “집권여당 대표

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 강릉 지인 아들의 대통령실 채용 사실을 두고 사적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권 대행이 “내가 추천한 인사”라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장의원에 압력을 가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등의 언급을 내놓은 것을 두고서이다.

이에 재충돌 우려가 제기되며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권 대행은 즉각 “장의원의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몸을 낮췄다. 권 대행이 확진 자제에 나서면서 두 사람 간 정면충돌은 피해간 모양새다.

하지만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아슬아슬한 실연음판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해석이 여론 안팎에서 나온다.

앞서 친윤그룹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들레 모임 결성, 이준석 대표 징계 후 당 진로 등을 둘러싸고 균열을 노출했던 ‘브라더’ 두 사람이 결국 재갈 길 가는 각자도생의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면엔 각자의 정치적 위치와 입장에 따른 여론 내 권력투쟁 성격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계 핵심이자 나란히 개국공신인 권 대행과 장 의원은 당장 이 대표 징계로 촉발된 차기 당권 경쟁 구도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